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감독 이노우에 다케히코

출연 미등록

개봉 2023. 01. 04.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리뷰입니다.

한국 개봉일인 2023년 1월 4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좀 애매한 시점에 리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저는 이 영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에 더없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관람 전 원작 만화를 안 봤거든요.

원작 연재 기간에 만화를 봤던 30·40대 중에서는 만화 안 본 사람 찾기가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더빙판으로 보고 왔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너무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빠지면 거기에 며칠에서 몇 주간 빠져있곤 하는데, 이 영화도 그랬습니다.

다른 리뷰나 후기를 찾아보고, 원작 만화도 읽어봤습니다.

더 깊게 빠지면 2차 창작도 찾아보고 굿즈도 사고 동일 IP 게임도 하는 건데, 아쉽게도 거기까진 안 갔습니다.

2023년 1월 10일 화요일



[Web발신]

예매완료

[0113-0110-4063-398](tel:0113-0110-4063-398)

CGV 의정부

더 퍼스트 슬램. 2매

2023/01/10 19:20

오후 1:35

이 영화를 올해 1월 10일에 보고 왔으니, 거의 4개월이 지나서야 작성하는 리뷰네요.
이전부터 블로그에 영화 리뷰를 남기면서 새삼 느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심도 있고 꼼꼼하게 정리할 것이 아니라면, 영화 감상은 되도록 빨리 남기는 것이 좋겠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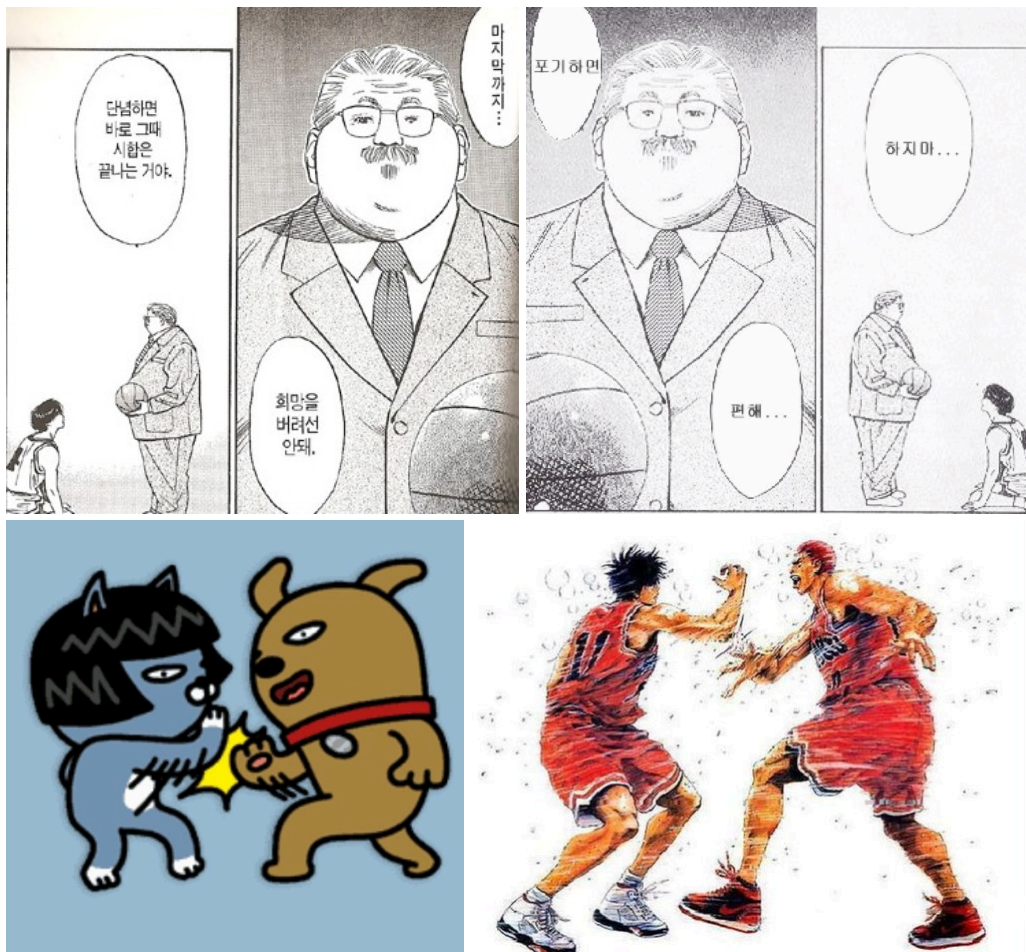
이제 영화가 남긴 여운도 다 가셨습니다.
당시 작성한 메모를 바탕으로 리뷰를 남기지만, 결국 글을 쓰는 건 지금의 저니까요.
아마 당시 느꼈던 감상을 정확히 표현하기란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재미있게 본 영화이고, 리뷰 하나 정도는 남겨두고 싶어서 이렇게 글 하나 써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진 글을 쓰는 건 아직 쉽지 않아서, 이번엔 토막글로 나눠서 적어보려고요.

가급적 영화 감상 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1.



만화는 안 봤어도 밈은 몇 개 알았는데, 그 밈에 쓰이는 장면들을 영화에서 보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똥보 감독 안 선생님, 하이파이브 등등.

정대만이 농구가 하고 싶다고 하는 장면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는 장면이 나올 때마다 탄성이 나오더라고요.

'와 이게 이 장면에서 나온 거구나', '내가 이걸 영화관에서 다 보는구나' 하고요.

만화를 보고 왔다면, 아는 만큼 보이는 게 더 많아져서 훨씬 재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니 밈 말고도 더빙판 애니메이션 노래도 알고 있었네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너에게로 가는 길 - 슬램덩크 오프닝

너에게로 가는 길 - 슬램덩크 오프닝



2.

일본어 잘 하는 친구가 더빙판으로 영화를 예매하더라고요.

보통 일본 영화는 자막으로 보는 인간이 왜 더빙판을 골랐나 싶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성우님들 더빙 정말 잘 하시는 것 알고 있고 저도 더빙판 많이 보지만, 많이들 원판에 자막 단 걸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화 보고 나니, 더빙이 옳은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원작 안 본 입장에서 주인공들 일본 이름은 모르는데, 한국 이름은 지나가다 들어보기라도 해서 그런지 좀 익숙하더라고요.

게다가 더빙이면 자막 볼 시간이 필요 없다 보니, 자막 영화 볼 때보다 놓치는 장면이 적어지고 내용 이해도 빠른 느낌이었습니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2회차 관람하면서 자막판, 더빙판 둘 다 보는 거겠죠?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3.

같이 영화 봤던 친구에게 감상평을 물어봤습니다.

슬램 덩크 원작을 봤고, 농구 좋아하는 친구는 처음에 송태섭 등장할 때부터 '어? 내가 아는 슬램덩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네요.

송태섭 스토리는 영화 오리지널 스토리인 듯합니다.

4.

영화는 송태섭의 과거 회상과 원작의 최종장인 산왕공고와의 경기 장면이 반복되며 두 시점이 점점 좁혀집니다.

경기만, 혹은 회상만 죽 이어서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는 회상에서 살짝 차분해졌다가 경기에서 다시 불타오르는 게 마치 단짠 같은 느낌이라 이러한 전개 방식은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

[10-FEET - 第ゼロ感 \(『THE FIRST SLAM DUNK』주제곡\)](#)

10-FEET - 第ゼロ感 (映画『THE FIRST SLAM DUNK』エンディング主題歌)



영화 아직 안 보신 분 중에서도, 예고편 '들어! 송태섭!!' 장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장면에서 OST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시원하게 터져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다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계속 비교하게 되는데, 원작 안 본 저도 이렇게 피가 끓어오르는데 농구 팬이거나 원작 팬이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6.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강백호가 상황 역전의 키로 투입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반드시 이기자!', '승리하자!' 가 아니었을까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매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말은 참 쉬운데, 이게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이긴다, 승리한다는 말은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분명 들인 노력과는 별개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부단히 노력한 자가 승리를 갈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의도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사 해야 하는 일은 되고 안되고를 바라는 일이 아닙니다.
바라는 대로 될 수 있게, 그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무언가 해야 합니다.
강백호는 그걸 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말한 대로 천재가 맞는 것 같아요.

바둑처럼 정확도 높은 농구 형세 분석 AI가 있다면, 아마 강백호 투입 당시 팀의 기대 승률은 현저히 낮았을 겁니다.

당시 팀에게 필요한 건 불확실한 데다가 확률까지 낮은 막연한 사기진작이 아니었습니다.

불리한 상황과 각자가 가진 콤플렉스 따위의 이유로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뒤집는 것이었죠.

강백호가 망나니 같기는 해도, 상당히 영리하게 사기진작을 합니다.

기대 승률이 낮아 보일 때는 현재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10점 차이만 극복하자'라며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서 현실감을 주고요, 팀원의 침체된 마음을 특정 행동으로 자극하여 변화를 주고 고무합니다.

기대 승률이 높아 보일 때는 '승리'라는 구체적인 최종 목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이제 이 말에는 무게, 설득력이 생겼고 이는 팀원들에게 충분한 동기 부여가 됩니다.

끊임없이 벽을 부수려는 노력을 하면서도, 매사 냉정한 상황 판단을 해야 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라는 말과 지향점이 비슷한 것 같죠?

이런 사람이 되려고 정말 조금이지만, 어기적대고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기억이 정확한 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느끼고 해석했습니다.

7.

경기 최후반 장면 목음 때 왜... 소리를... 내시는... 걸까요...

과몰입 절정 상태가 깨지는 게 너무 화나서 영화관에서 한숨 쉬듯 욕을 내뱉었던 사실을 고백합니다.

너무 방구석에서만 있다 보니 사회화 수치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작게 했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용하면 조용할수록 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글 읽고 영화 보시는 분들은 해당 장면을 모두가 숨죽인 상황에서, 숨죽여서 보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8.

크레딧 이후 쿠키 영상이 있습니다.

큰 임팩트를 준다고 보다 소소한 여운을 남겨주는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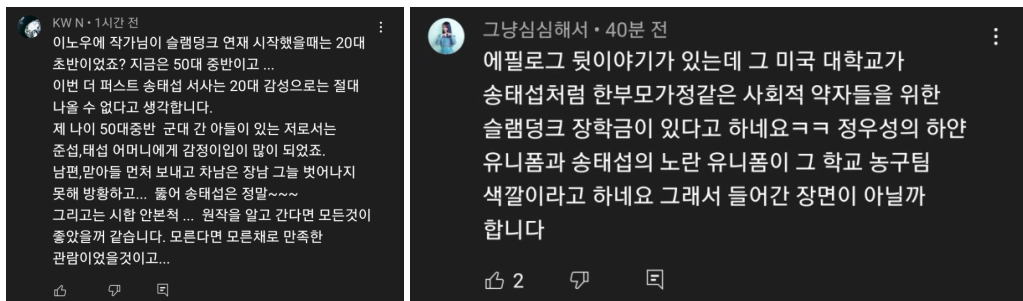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쿠키 영상 관련 영화관에서 보실 분들께 친구가 알려준 소소한 팁 남겨봅니다.

쿠키 영상의 유무는 크레딧이 올라갈 때 스크린 위 조명의 ON/OFF 여부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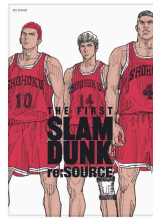


개열받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 감상회

위 링크된 주호민 작가 유튜브 영상의 댓글 중 인상 깊었던 댓글 두 개 캡처해서 공유해 봅니다.

송태섭 서사, 조금 무리수처럼 느껴졌던 에필로그 장면의 등장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10.



슬램덩크 리소스(THE FIRST SLAM DUNK r...

저자 이노우에 다케히코

출판 대원씨아이

발매 2023.02.28.

해당 책에 포함된 단편 <피어스>에 영화 속 송태섭 이야기가 엮보입니다.

소년챔프 통권 299호 (1998년 1월 27일호) (ft.피어스 Pierce)



소년챔프 통권 299호 (1998년 1월 27일호) (ft.피어스 Pierce)

주간 소년 챔프 통권 299호 1998년 1월 27일호 왜인지 모르지만 표지를...

m.blog.naver.com

1998년 단편이니, 무려 25년만에 이 이야기가 다시 쓰인 거네요.

어쨌든 참 재미있게 본 영화였습니다.

다음에는 영화 감상 후 읽었던 원작 만화 리뷰를 남겨볼까 합니다.

그럼 이만!

오늘은 여기까지★



+

콤보

BEST



아듀! 짜파게티팝콘 콤보 반값
짜파게티팝콘L1+탄산M2
5,200 원

블루
팝콘(M

요새 콜라보 제품이 눈에 많이 띄네요.

팝콘에 음료 두 잔까지 5,200원으로 싸길래 사 먹어봤는데 괜찮았습니다.